



▶ 르완다 아카제라의 청소년 공동체

제공: WMM

누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

르완다의 한 예배 처소에 학생들이 빙 둘러 앉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가르쳐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뜨겁게 타오른다. 이 아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신나게 자랑할 것이다.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가 된 자들, 예수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능력이 된 자들이다.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자들은 예수를 자랑할 수 없다.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즐거이 전한다. 그가 바로 증인이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주

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GNPNEWS]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사도행전 5:42)

다음 호는 1월 20일자로 발행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트남, 2만여 명 대규모 복음집회

성탄축하예배 통해 1000여 명 결신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지난해 말 8년 만에 야외 복음전도행사를 겸한 대규모 성탄축하예배가 열려 베트남 교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지난해 12월 8일 호치민시 11군에 위치한 푸토경기장에서 호치민개신교대표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집회 참여인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대회를 지켜본 미국 기업인 폴은 “베트남에서 이런 행사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놀랐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 같다”며 감격해 했다. 또 개신교단이 설립한 마약 중독케어센터를 통해 회복된 사람들의 간증도 이채로웠다. 이곳을 통해 회복된 한 성도는 “마약은 저의 가정, 재산, 신체를 다 가져갔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신체와 행복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이번 대회에 앞서 관계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띤 홍보를 벌였다. 대회 당일은 베트남개신교단 웹사이트(httlvn.org)

에서 생중계되어 시청자가 많아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다운되기도 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진행되기도 했다.

군중 가운데는 승려 복장을 한 참가자도 눈에 띄어 참가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특히 이날 집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무려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GNPNEWS]

[인터넷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사도행전 2:40b~41)

기도 |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며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증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속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확증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1)

성경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가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성경? 읽어봤어요. 물이 포도주로 뾰다는 등, 물 위를 걷는다는 등, 믿지 못할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셨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쓰인 목적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까? 사람의 마음, 이름도 알 수

없는 풀, 모든 생물은요?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는 어떤가요?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조차 답을 찾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물론 당신 말대로 성경엔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성경이 쓰인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며 그 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 그러나 하나

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당신의 새 생명이 되어 거듭난 인생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당신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기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도 장성하면 알게 되듯 당신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일러스트=김경선

이성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야기들로 당신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 복음의 위대한 승리는 내가 곤고한 자임을 깨닫는 것 2면

특별기획 |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꾸란은 위협적이지만 성경은 읽을수록 기쁨을 갖게 했어요” 3면

인터뷰 | 김재훈 전도사 “제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이예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승리는 내가 곤고한 자임을 깨닫는 것”



복음기도신학연구소, ‘복음의 위대한 승리’ 3차 신학강좌

“복음의 위대한 승리는 내가 곤고한 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만 맛볼 수 있습니다”

복음기도신학연구소가 지난 12월 11일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서 마련한 로마서 6~8장에 나타난 복음의 위대한 승리의 의미를 조명하는 제3차 신학강좌에서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대표)는 이 같이 밝혔다.

복음의 승리의 실천적 관점을 조망한 김 선교사는 “성경은 나로서는 안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없다. 내 존재에 필요한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돌덩이 같은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학적 관점으로 조망한 김명호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장)는 “로마서 7장은 복음 이해에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다”며 “로마서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죄의 몸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가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죄와 친화적이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생명을 살리는 기능이 없으며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내신 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복음과 기도가 결론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자로, 꽃대를 향하여 질주하는 자, 순종의 전문가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 역사적 관점에서 복음의 승리를 조망한 김경석 목사(강서침례교회)는 “성경이 칭의와 성화를 절대 분리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신학에서 이 둘을 구별하게 된 것은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 개념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분명히 하기 위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며 구원론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했다. 김 목사는 이에 따라 이기심과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화와 칭의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고 덧

붙였다. 즉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삶에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 나태한 모습을 변호하기 위해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용하거나 곡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바울은 로마서 6-8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는 단지 죄사함 혹은 칭의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학강좌에는 360여 명이 참석해 복음의 승리의 삶에 대한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열망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연구소는 로마서 6-8장에 담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교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강좌의뢰를 받기로 했다. 문의 ☎ 010-5190-1228 [GNPNEWS]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신학강좌의 강의 내용 요약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인텐시브 학교, 2019년 1월

복음기도신학연구소는 2019년 겨울 히브리어 인텐시브 학교를 2019년 1월 21일~26일까지 서산 헤브론선교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성경언어에 관심 있는 성도들을 위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 자락을 붙잡고!’(슥 8:23)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은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2월 24일~1월 19일까지이며 교육비는 15만원(교재비 별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대학교 웹사이트(huf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10-6613-7647, 010-5135-1288, 이메일: gpinstitute@naver.com [GNPNEWS]



13기 청소년복음캠프 훈련생, 섬김이 모집

청소년복음캠프 진행본부는 예비 중1~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13기 청소년복음캠프를 2019년 2월 18일(월)~22일(금)까지 4박 5일간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예비 중학교 1학년(2006년생)에서 고등학교 3학년

(2000년생)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12월 26일(수)~1월 26일(토) 까지.

원서는 웹사이트(cafe.naver.com/goodnewsprayer)에서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해외 일 경우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섬김이는 청소년복음수련회, 복음캠프 수료자, 복음학교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훈련생 모집기간과 동일하다. 장소는 추후 공지. 문의 ☎ 010-7364-9982, 010-5444-7386, 010-5146-4641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2.9 ~ 12.2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쿠바 교회 지도자들, 종교자유 외치다 압수수색 당해”

쿠바의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종교자유 침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종교자유를 제한하는 법안 초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쿠바 교회 지도자들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말을 인용,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보도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 일인지 깨닫습니다. 쿠바의 교회가 참된 자유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완전한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인도 불법 광산에 광부 13명 매몰... “전원 사망 추정”

인도의 한 불법 광산에서 광부 13명 이상이 매몰돼 며칠째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도 NDTV가 16일 보도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생존 흔적이 발견되지 못한 상태라 매몰자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주님,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위험한 일에 자신을 던져야 하는 인도의 비참한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일시적인 행복을 위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되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위로와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시길 구합니다.

日중소기업 “인력 없다”... 일손 부족에 올해 324곳 이상 폐업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서 인력 부족으로 폐업을 결정한 중소기업이 올해만 300곳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용조사회사인 도쿄(東京)상공리서치의 발표를 인용,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타가 흔들릴 때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교회들을 더욱 등대와 같이 일으켜주십시오. 보다 더 두려운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알리며 희망 없는 일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19일

- 12월 31일~1월 5일**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손**)010-3913-2677, 12.31-1.5(09-21시) ▶경기 수원 / 머스트교회,머스트위십(유**)010-3399-1714, 1.1-3(10-12시,14-16시,19-20시) ▶인천 계양 / 효성동감리교회(조**)010-72632-7457, 1.1-5(10-12,14-16시,19-20시) ▶서울 서초 / 충신감리교회(이**)010-4873-0618, 1.1-5(0-24시) ▶경기 화성 / 행복한동산교회(강**)010-3695-2448, 1.1(02시)~2(02시) ▶강원 원주 / 남원주성결교회(강**)010-8271-0133, 1.1(0-24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2(06시)~3(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1.3-4(0-24시) ▶강원 속초 / 속초동명교회(최**)010-8373-1273, 1.4(18-20시) ▶우크라이나 무카체보 / 무카체보 중앙침례교회, 1.4(20시)~5(20시) ▶K국 / K국 엘도스공동체, 1.4(20-24시) ▶전남 광주 / 삶이예배인교회(진**)010-3305-3541, 그 외 10교회 진행 중.

- 1월 7일~1월 12일** ▶경북 영덕 / 다사랑교회(김**)010-5507-0198,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전남 광주 / 십자가사랑교회(김**)010-6280-4419, 1.7-11(10-16시) ▶경기 수원 / 칠보교회(박**)010-6818-2949, 1.7(0-24시) ▶경남 울산 / 울산태화교회(박**)010-9326-7767, 1.8(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1.10(11-13시) ▶인천 연수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이**)010-4200-5237, 1.11(0시-24시) ▶전남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1.11(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그 외 9교회 진행 중.

- 1월 14일~1월 19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4501-0059, 1.15(10시)~16(10시) ▶전북 전주 / 전주수정교회(김**)010-6319-8045, 1.17(11-13시) ▶인천 연수구 /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이**)010-4200-5237, 1.17-19(20-24시) ▶전북 전주 / 전주청년세대(박**)010-29331-4039, 1.17-18(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7336-7535, 1.19(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14-16(16-18시)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김**)010-8432-3698, 1.14-15, 17-19(19-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1.15-18(10-12시) ▶경기 시흥 / 은혜교회(위**)010-4510-1070, 1.18(10시)~19(10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그 외 6교회 진행 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특별 기획 |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도인(1)

“꾸란은 위협적이지만 성경은 읽을수록 기쁨을 갖게 했어요”

분향을 떠난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나거나 머무는 곳에 육신이 누울 공간이 있는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실감하기 어렵다. 우리가 나그네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 소위 ‘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2018년 12월, 터키 땅에서 만났다. 신앙의 이유로, 또 자유로운 삶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난민 또는 세상을 등지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편집자>

2018년 12월 중순 어느 날,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소재한 한 교회를 찾았다.

11시쯤 도착한 교회에서 10여 명 남짓한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 가량 설교와 기도로 예배가 진행됐다. 예배를 마치자 접이식 책상들이 펼쳐지며 테이블로 변신했다. 우크라이나, 이란, 중미 출신과 터키 성도들이 준비해온 음식으로 식탁교제가 진행됐다. 이곳에서 이란 출신의 나세르 형제 부부를 만났다.

나세르 형제는 이란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중 친절하고 자상한 특별한 고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여느 손님과 다르게 배려심이 뛰어난 그 손님이 전해준 한 권의 책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것이다.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읽어보시면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올 때 설명해드리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고객이 건네준 인질(성경)을 나세르는 읽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질문이 생겼다. 나세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슬림인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무엇이 그를 그 진리의 바다로 이끌었는지 궁금해졌다. 대화는 다음 날 저녁 그의 집에서 다시 이어졌다.

나세르 형제 부부의 집은 깨끗하고 따뜻했다. 그를 우리에게 소개한 지인의 말로는 이 집에서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기는 드문 일이라고 했다. 평소 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난방을 끄고 사는데 오늘은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고 스팀을 켜놓았다고 했다. 슬쩍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복된 소식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성경의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됐나요?” 궁금한 질문부터 던졌다.

“꾸란은 매우 위협적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을 갖게 했어요. 꾸란은 짐을 지라고 강요한다면,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했어요”

성경이 가져다 준 혁명

35세까지 무슬림이었던 그의 삶에 성경의 등장은 혁명이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질문이 생겼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하루 5번씩 모스크에 가서 기도하는 살라트라고 불리는 의식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예상일이었다. 그렇다고 살라트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이슬람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에게 성경을 전해준 전도자는 “예수님도 이맘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그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하며 성경을 풀어 설명했다. 그렇게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나세르의 눈길을 끈 말씀이 있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 7:7) 꾸란과 달리 성경말씀은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했다.

전도자는 말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삶 그 자체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다. 그리고 가정교회 지도자를 소개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슬림 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그는 두려웠지만 그 지도자를 만나게 됐다.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커져갔다.



▶ 난민들이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발급받는 난민증명서

그렇게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던 어느 날, 여러 명의 경찰이 그곳을 급습했다. 10여 명의 남녀 성도가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그 집을 수색해 성경과 교재를 발견했다. 경찰은 남녀를 분리시키고 손을 뒤로 묶은 채 끌고 갔다. 힘겨운 분위기에 구타가 이어졌다. 머리를 붙잡고 벽에 짚어 댄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질문공세가 시작됐다. 그날 모임은 생일 때문에 모였기에 생일파티라고 말했다. 경찰은 예수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아직 그때까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다. ‘모른다’고 답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혹독하게 취조하던 경찰이 그를 놓아줬다. 다시 그런 곳에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간이 흘러 이듬해 이란의 설날인 노루즈에 그는 다른 도시에 일하러 떠났다. 그때 경찰이 다시 나세르의 집을 찾아왔다. 당시 상황을 부인 레일라가 설명했다.

“집을 뒤져서 성경과 PC에 있던 각종 파일들을 가져갔어요. 집에 남편이 없으니 경찰은 그냥 돌아갔어요”

레일라는 두려웠다. 귀중품을 챙겨서 어머니 집으로 갔다. 나세르

의 친구는 앞으로는 출국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바로 이란을 떠날 것을 권유했다. 두 아들과 함께 나세르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고국 이란을 떠나게 됐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나그네의 삶을 터키에서 살게 됐다.

“이란에서는 별로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았어요. 정든 고향을 떠난 뒤 돈이 없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편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고 보호해주시고 있음을 믿어요”

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레일라는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믿게 됐으며, 지금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이란에는 가정교회가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지난 7년여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



▶ 나세르의 가족. 두 아들과 아내는 영원한 분향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을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터키에 도착한 그는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난민신분을 인정 받은 뒤,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됐다. 그는 그나마 전문기술이 있어서 다른 난민에 비해 조금 나은 형편이다. 직장을 구해 적은 월급으로나마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두 아들 이면과 예전을 정규학교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은 못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홈스쿨로 공부하고 있다.

부인 레일라는 이란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다만 남편의 변화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의 변화된 삶에 도전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술 마시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증인의 말은 힘이 있었다. 그런 변화된 남편을 보고 그녀는 이란 땅을 함께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터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현재의 교회에 출석해 매주 목사님의 가정심방을 받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백하던 나세르 형제의 얼굴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지나간 시간들을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네요” 진리를 찾아 나선 천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처럼 매일 또 하나의 여정을 밟고 있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울 수 있느냐는 말에 부인과 함께 또박 또박 이란어로 선포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현관문을 나서는 우리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는 손을 흔들며 알듯말듯한 미소로 배웅했다. 거리를 나서는데 겨울비가 차가운 공기와 함께 우리 일행의 웃기를 여미게 했다.

영원한 분향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딪치는 시간은 이 같은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고된 여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방 없는 수고로운 삶이 아니다. 레일라의 말이 귓전에 메아리쳤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GNPNEWS]

앙카라(터키)=C.K.



▶ 터키 앙카라에 위치한 교회. 예배를 마치고 각자 준비한 각종 음식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찬을 나눈다.



기획 | 창조 이야기(7)

“지구 수십억 년설은 죄 이전에 죽음 존재 의미”... 비성경적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진화론자들은 20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폭발한 빅뱅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식었다고 말한다. 또 지구가 뜨거운 바위 덩어리로부터 시작되었고 수천만 년 동안 모인 비가 바다를 이루었다고 한다. 바닷물의 소용돌이가 복잡한 화학물질의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배양액이라고 하는데, 이 배양액에서 매우 느리게 생명체로 발전했다고 말한다. 느린 게 맞다. 일어나지도 않을 만큼.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로 천천히 진화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빅뱅 이론이다.

보스턴의 한 대학에서 강연할 때의 일이다. 한 교수가 “만일 우리 교수들이 당신에게 아무 질문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학교에 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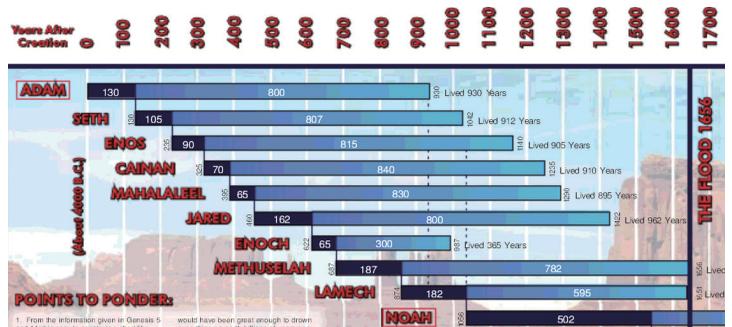
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위해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대답했다. 그곳에는 6명의 교수들과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마치 사자 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느껴졌다.

‘들에서 진화’ vs ‘방주에서 나온 동물의 변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저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4400년 전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홍수가 있었으며 노아가 동물의 종류대로 2마리씩 방주에 넣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말했다. 그러자 한 교수가 아주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세상에는 100가지도 넘는 다양한 개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당신은 그 모든 개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두 마리의 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까? 저보고 그걸 믿으라고요?” “교수님, 당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는지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학생들에게 그 모든 개들이 바위로부터 나왔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수는 그 이후로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성경을 읽을 때 연도들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아주 놀랍다. 아담이 그의 5대 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아버지는 아담을 56년 간이나 볼 수 있었다. 또 노아의 아들 셈은 홍수 후에 아브라함, 이삭,

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창 17:8~9) 600세 된 노아가 한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자기가 그다지 나이



▶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되었고, 44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고 명확히 말한다. 켄트 호빈드는 성경을 연구하여 창조시기의 조상들의 연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출처: creationtoday.org 캡처)

야곱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았다. 야곱은 13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 중 하나가 요셉인데 형제들의 질투로 이집트에 팔아넘겨졌다. 그러나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흉년의 시기에 그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한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에게 소개했고 파라오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

가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아담의 창조가 처음이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었다고 가르친다. 이 둘은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지구가 수십억 년이 되려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죽음이 존재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단이다.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믿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죽음을 죄 이전에 두는 것이 분명한 이단이다. 성경은 단호히 말한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롬 5:14)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고전 15:21)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고전 15:22)

왜 지구의 나이에 신경을 쓰는가? 우선 창세기의 신빙성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수십억 년을 찾지 못한다. 창세기는 어떤 도사가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줘야만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신빙성이 위험해진다. 예수님은 창세기를 25번이나 인용하셨다. 또한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이 창세기를 인용한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만일 수십억 년을 빼버리면 그들의 이론이 아주 멍청해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요 5:46~47) 성경은 분명하게 지구의 나이가 약 6000년이라고 가르친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 콩고민주공화국 소식(2)

“아프리카도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하 민주콩고) 베니에서 이슬람 반군 민주군사동맹(ADF)의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ADF는 지난 한 달간 베니에서 40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유엔에 따르면 ADF 반군의 계속된 폭력사태로 민주콩고 동부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에볼라 대응 활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2018년 말로 예정된 대선·총선도 순조로운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민주콩고 본지 통신원이 알려졌다. <편집자>

민주콩고의 베니는 내전과 에볼라로 고립되어가고 있다. 질병과 무지와 가난은 고립을 더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 나라 의사들이 베니 지역 병원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설령 간다하더라도 많은 인건비(하루 130달러)를 보장 받아야 들어간다.

그뿐 아니라 비인도적인 정부 직원들은 베니 아래 지방으로 피신하고 있다. 그 땅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다.

에볼라에 대한 두려움은 필자가

머물고 있는 G시에도 직접적이다. 당장의 총소리는 없어도 소리 없는 두려움이 있다.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피를 흘리고, 고열이 나기만 해도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니를 방문했던 한 장관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누구도 예외 없이 임상시험도 끝나지 않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 나도 그 백신을 맞고 2일간 몸에서 열이 났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북 키부주의 베니는 우간다, 민주콩고, 남수단이 함께 걸쳐있는 지역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두고 다수 반군단체가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중 이슬람 반군 민주군사동맹(ADF)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수백 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다. 이슬람교를 신봉하며 암약하는 반군단체로 1995년 우간다 서부에서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한 자밀 무쿨루를 지도자로 받들며 결성됐다. ADF는 2014년 이후 소년병을 징집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으며 2017년 12월에는 탄자니아 출신 유엔평화유지군 15명을

살해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ADF는 또 지난 한 달간 베니에서 40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심판 아닌 구원의 시간

고립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죄가 왕성한 것 같다. 이 나라 사람들도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주변국의 탐심에 돌리려한다. 그런 중에도 기도하던 교회들이 고립된 곳을 향해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알게 하신다. 고립은 때로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피해함과 잔혹함, 본능이 왕노릇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신다. 고립되어 가는 이 땅의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 된 옛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고립된 모든 상황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엎드리게 된다.

“너! 이 복음이면 아프리카가 충분하다고 보느냐?” 질문하셨던 주

님 앞에 “아멘!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답했던 부르심이 있었다. 고립된 베니 땅이 내가 서 있는 나라요 나의 이웃이기에 무릎으로 주님께 베니 땅에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길 강정하게 된다.

12월 말에는 17년간 장기집권을 한 조셉 카빌라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날 함께 치러지는데 전자투표기를 사들인 것이 화근이 되어 여기저기 시위 소식이 들려온다. 선거법상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수 없기에 불법이라는 것과 민주콩고 국민들은 기계를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아 충분히 부정투표가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전기가 부족해 밤이 일찍 오고, 차 소리가 많지 않아 조용하지만 실상은 조용할 날이 없는 민주콩고, 열방의 한 복판에 서 있다. 베니의 내전과 에볼라 그리고 대통령 선거. 모든 일들이 국민들의 생명과 맞물려 있기에 기도의 긴장을



▶ 대통령 여당후보 임마뉴엘 샤틀리의 옥외 광고(사진: 사라 케이 통신원)

놓치지 말라고 하신다.

무엇보다 주님이 더욱 이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느 4:20) 약속하셨기에 고립을 넘어 넘침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신다.

주여! 고립된 베니 땅의 영혼들이 값없이 목숨을 잃기 전에 생명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게 하소서. 자신의 안녕을 뒤로하고 백성을 돌보는 목자와 지도자들을 세워 주소서. <끝> [GNPNEWS]

사라 케이(민주콩고 통신원)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제 인생 전부가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김제훈** 전도사(광주 문광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생각했다. 삶의 십일조를 드리려고 시작한 10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 인생 전부를 드리게 된 김제훈 전도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그분의 소유가 되어 주님만 따라가는 그의 삶을 들어본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목한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부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0살이 되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최대한 많은 일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두 달은 안 념도록요. 그래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신발 가게에서 12시간을 서서 일을 하는데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길거리 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말을 걸고 결국에는 신발을 사게 만들었죠. 서울 도심 지하상가에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들어간 곳에서 첫 월급을 120만 원 받았어요. 일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 수완이 있으셨던가요. 그 이후 어떻게 되셨나요?

“장사가 내 적성에 맞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의 멘토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 병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힘든 군 생활 때문에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교회에 나이 지긋하신 싱글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공부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건 최소 3시간 성경공부를 하고 그날은 이웃을 사랑하자로 결단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바구니를 가져오시고는 “우리 고백만이 아니라 실천을 해보자”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모인 지체들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꺼냈어요. 마침 제게는 전날 면회 온 사람이 주고 간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돈을 꺼내지 못하고 병실로 올라왔어요. 괴로운 하루를 보내고 다시 전도사님을 찾아가 5만 원을 드리고 나오는데, 내 믿음

이 5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와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됐어요”

군대에서 믿음의 삶을 배우다

-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된 거군요.

“이제껏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하게 된 성경공부는 매일 충격이었어요. 말씀을 볼수록 저의 삶의 결과는 지옥이었어요. 전도사님을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때는 다 몰랐는데 전역 이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는지요”

- 그 이유가 뭐였죠?

“전역 이후 저는 백화점이나 더 큰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화여대 앞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잊을만하면 전도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서요. 계속 거부하다가 물질의 십일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삶의 십일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십 년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계속 사역을 하고, 못 들으면 멈추겠다고 했죠. 그때가 26살이었어요. 부르심이라면 그때만 해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엄청 많이 다녔어요.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매주 대구 군 선교부를 오가며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어요. 군 선교부에서 7년 정도 있었는데,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공동체에서 매일 모든 사람들의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를 제가 다 했어요. 이런 섬김은 기본이었어요”

- 엄청난 훈련이라니,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사역적인 열매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그때 주님은 저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제가 훈련받는 동안은 이성교제를 하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나 저는 군 병원 간호장교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간호장교와 같이 찍은 사진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전도사님이 그 사진을 제 사무실 책상에 두고 가셨어요. 그 어떤 책망

을 받은 것 이상으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분을 속였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에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열매가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거짓이었고 교만과 음란함만 보이는거예요. 군 선교부에서 도망쳐 서울 집으로 와서 몇 달간 은둔생활을 했어요”

믿음의 삶에 절망하다

-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집 앞 교회에서 새벽과 저녁에 매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기도회의 이름은 마라나타였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누구보다도 더럽고 추했어. 늘 맨 앞자리에 가서 울며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주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은 늘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은 주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께 다시 한 번 저 자신을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결정할 것도 없이 그때부터 저는 그저 주님의 것이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로 넘어갔다는 고백이군요. 그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어떤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것이 결론이었죠. 은둔생활 가운데 기도하며 만나게 된 주님 때문에 너무나 흥분되었고 기쁨이 흘러넘쳤어요. 당시

다니던 교회는 다음세대에 역점을 둔 교회였어요. 저는 청년부 안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제가 사역자라는 것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구석에 앉았죠. 그때부터 모자 쓰는 버릇도 생겼고요. 부끄러웠고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두려웠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혹시 신학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시 너를 부르신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는 “아니요. 주님이 저 안 부르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왜냐면 십 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 유예기간이요?

“저의 삶의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한 10년이 끝났을 때였어요. 하나님 응답도 못 들었고 그래서 아니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목사님은 처음 대화하는 자리에서 저를 엄청 혼내셨어요. 교만한 놈이라고!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다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통해 진짜 소명이 뭔지 알게 됐어요. 다시 주님이 주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자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한 교회 개척멤버로 섬기게 된 것이죠”

-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 받으셨네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개척해서 3년 즈음,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제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당시 주님은 사울과 함께 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순종을 하는데 저

는 못하는 거예요. 억지순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허락하신 휴가기간 동안 복음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아내와 함께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동안 조각조각 알고 있던 복음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정리되는 시간이었어요. 왜 이 복음이 십자가가 중심된 복음이어야만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제가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다

-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성도로 하여금 복음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치유나 기적도 물론 일으키시지만 그 목적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3년여의 시간 동안 보수적인 교회와 신비주의 교회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좋은 현장학습을 허락하셨던 거 같아요”

-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군요. 지금 다음세대를 섬기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다음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진 않았어요. 작년 여름, 교회 한 집사님이 청소년복음수련회를 함께 섬기자고 제안하셨어요. 한 주 동안 청소년들에게 총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훈련과정이었죠. 당시 출애굽기 묵상중이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복음수련회로 가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거의 끌려가다시피 섬김이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세대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세대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청소년 복음수련회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된 그들의 실상도 그렇고 더욱더 빠른 시기에 다음세대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청소년복음수련회를 여러 번 섬기면서 복음을 대하는 저의 생각 (6면에 계속)



▶ 청소년복음수련회에서 섬김이들과 예배를 섬기고 있는 김제훈 전도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4)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마음의 닳을 내려야 한다. 마음에 선택할 의지를 주셨다. 마음을 확정하라. 수많은 논리, 미혹, 위협, 도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丹)마음으로 나아가라. 사울은 악을 쓰며 평생 권력의 종이 되어 살았다. 사울처럼 살지 말라! '나'의 주권과 '나'의 탐욕이 끝나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 거기서 나의 옛 사람을 예수와 함께 끝내고 마음을 확정하라!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마음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담시키는 상황, 감정이 격동하고 의심의 구름이 밀려올 때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거나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라! 의사가 '당신은 끝났다'고 말하는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때, 의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묶이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었으나, 천하에 누

가 뭐라 해도 분명히 기억하라.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주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러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맡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불의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옳고 그름을 드러내신다. 모든 거짓을 드러내시고, 의인의 진실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

주님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시다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를 도와 줄이가 없을 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복음기도동맹군들이여, 하나님 편에 서라!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마음에 확정했기에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시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 하소서”(시 108:5~6)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정의의 나라이며, 순결하고 거룩한 나라이다. 우리의 심령, 민족,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눈물이 씻길 수 있고, 비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오! 주님, 이 땅을 다시 한 번만 더 거룩하게 세우셔서 온 열방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나라, 저주 받은 이 조선 땅, 이 민족이 복음 받아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될 줄 그 누가 짐작하거나 상상이라도 했던가?! 잘났든 못났든 이 땅엔 천만 기독교인이 두 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있고, 6만여 교회가 있다. 아직도 복음을 선포



일러스트-노주나

하면 이 복음 살아내고 싶어 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킨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비록 어설피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멋지게 기도할 줄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비틀거리도 주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 못 죽는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이다. 말아먹을 짓만 했어

도, 이 나라가 숭한 위기에 살아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두려운 상황이나 격동하는 정치판이나 여론에 휘말리는 군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써 주실 것을 믿는다. (2017년 3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헤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2019 헤브론선교대학교 신입생 모집공고

모집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인정 대상자 (단, 예외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입학설명회

- 일시: 3차 2019. 1. 11(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헤브론선교대학교 교사
- 입학설명회 참가 신청 : 이메일 hufm@hanmail.net
전화 010-4031-0700, 010-9649-5347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입학원서는 입학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교부 (입학원서 전형료 7만원)
- 2019. 1. 14(월)~25(금) (마감일 우표소인까지)
- * 입학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함.
- 해외 거주자는 별도 문의

입학전형 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일시: 2019. 1. 28(월)~30(수)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 31(목)
- 입학식: 2019. 3. 5(화)

전공선택에 관하여

- 헤브론선교대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전공을 미리 선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년 영성과정을 마치면서 전공을 선택한다.
- 일부 단과 대학 중 전공별로 예외를 둔다.

학교생활에 관하여

- 1 헤브론선교대학교는 일주일에 4박5일 학교수업과 3박4일의 현장수업으로 진행한다.
 - 학교수업: 월요일-금요일
 - 월요일 오후 입소 후 저녁식사 / 금요일 점심식사 이후 파송
 - 현장수업: 금요일-월요일
 - 가정, 교회 등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배운바 진리를 다양한 형태로 실제 체험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 2 매 학기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문의 및 접수처

☎ 010-4031-0700, 010-9649-5347 ✉ hufm@hanmail.net

주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헤브론선교대학교 (31952)

Interview (5면에 이어)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첫 번째 참여했을 때는 다음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당시 섬기고 있던 지역에서 이런 수련회를 열어야 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참석했던 아이들을 보니 이 복음을 좀 가볍게 대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자신의 죄인 된 실존을 복음 앞에서 비취 본다는 게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를 진리에 부딪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웃음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련회 진행 방식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참석했을 때 아이들이 자기 존재의 죄 된 실상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이에 제한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셨죠.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죠. 다음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고 있어요. 무지한 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 더 듣고 싶지만 아쉽네요. 끝으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창 22:17) 현재 섬기고 있는 문공교회로 올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GNPNEWS]

E.H.



▶ 섬김이로 간담채니아 복음학교에서 복음기도동맹군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피할 곳을 찾는 저를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암흑기,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의 보급 자리를 흠어 비행훈련을 시키듯 내게도 믿음의 삶의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제가 어릴 적 불교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술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할아버지께 한 소리를 듣고 화집에 술인 줄 알고 들이킨 농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딸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곳을 해봐도 전혀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 다. 마지막 방법으로 붙잡은 것이 치유 은사를 가진 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받고 병고 침을 받게 되면서부터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교회만 오갔을 뿐, 말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전혀 말

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두려움에 떨며 지냈 습니다. 나보다 괜찮은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수업시 간에는 목소리가 떨어져서 책 한 줄 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을 두려워 했습니다. 늘 자신감 없어 스스로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것처럼 대수롭 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 다섯을 홀로 키우셨던 어머니는 늘 나에게 화만 내시는 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으로 여겼습니 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창문에 못을 박고 문을 열지 못하 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엔 늘 다툼과 분노 뿐이었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살다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내가 할 수 있고 쓰임 받는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장상사가 육체적 관계로만 자신의 병이 치료된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된



일러스트=이예현

관계는 내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 끊을 수 없게 되어버렸 습니다. 야반도주하듯 직장을 나오 고 보니 내게 남은 것은 잃어버린 순결과 그분으로부터 얻은 몇 백 만원의 빚이었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소망이 없어 절망하던 그 때, 주님이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이 소유가 많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주님이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과

결별을 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 었습니다. 비로소 이전의 저의 모든 삶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주님은 저를 복음 앞에 세워주 셨고 선교사로 헌신해 지금에 오기 까지 은혜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새끼에게 능력이 있음을 아는 어미 독수리의 선택

어미 독수리는 압니다. 새끼에게 창공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보급자리를 흠어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어미는 새끼가 바닥에 곤두박질치기 전 자기 날개로 업어 올라옵니다. 새끼가 날개를 펴 창공을 날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도 제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게 해주고 싶어 여러 시간을 통해 안락함을 흠어버리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 주님 품 안에서 품으셨습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사 4:6)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예루살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난처를 찾던 나의 존재를 바꾸어서 이제는 폭풍과 비를 피하는 곳을 찾는 이들에게 제가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제 인생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시고 또 다른 영혼이 피할 수 있는 하나님나라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도 하늘 분향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 달리는 자로 섭니다.

[GNPNEWS]

최경승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핵무력 완성을 선전하는 북한, 14년 연속 인권탄압국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간부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날(11월 29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고 데일리NK가 지난해 12월 17일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내부적으로 핵무력 건설을 성과로 내세우며 핵보유국을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정권 수립 70주년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핵무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당국이 ‘핵무력 완성의 날’ 선포 1년을 맞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국가 핵무력 건설은 역사적 대업이고 당 병진로선(핵-경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데일리NK가 입수한 간부 및 근로자 대상 선동자료(지난해 11월)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김 위원

장이 이뤄냈다는 설명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는 “(국가 핵무력 완성은)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라면서 “연속적으로 감행되는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책동도, 야만적인 제재 봉쇄 책동도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2월 16일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파상적인 제재·인권 압박에 “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핵 포기는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북한 당국은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자료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력사적인 대업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경제건설 대진군을 더욱더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는 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전했다. 이에 매체는 북한이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으로, 내부 동력

을 통해 제재에서 탈피하자고 내부 주민들을 다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유엔 총회,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한편 유엔총회는 14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원원합의)로 지난해 12월 17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앞서 채택된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강제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모든 정치범의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반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다. 이어 COI가 ‘북한 지도층’(leadership)에 반인도범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와 사법처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이번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



▶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 회의장(출처: UN 캡처)

주재 유럽연합(EU) 및 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을 겨냥해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GNPNEWS]



양심과 능력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을 모든 세대가 갖고 있다. 그러나 선을 아는 것과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양심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만, 그렇게 할 능력까지 주진 않는다.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반역성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 일을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옳은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본능적으로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오직 생명을 불드리는 생명 그 자체, 즉 성령을 받을 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구속의 실제적인 역사다. [GNPNEWS]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

겍하르트의 <야곱과 천사>

승부처는 압복 강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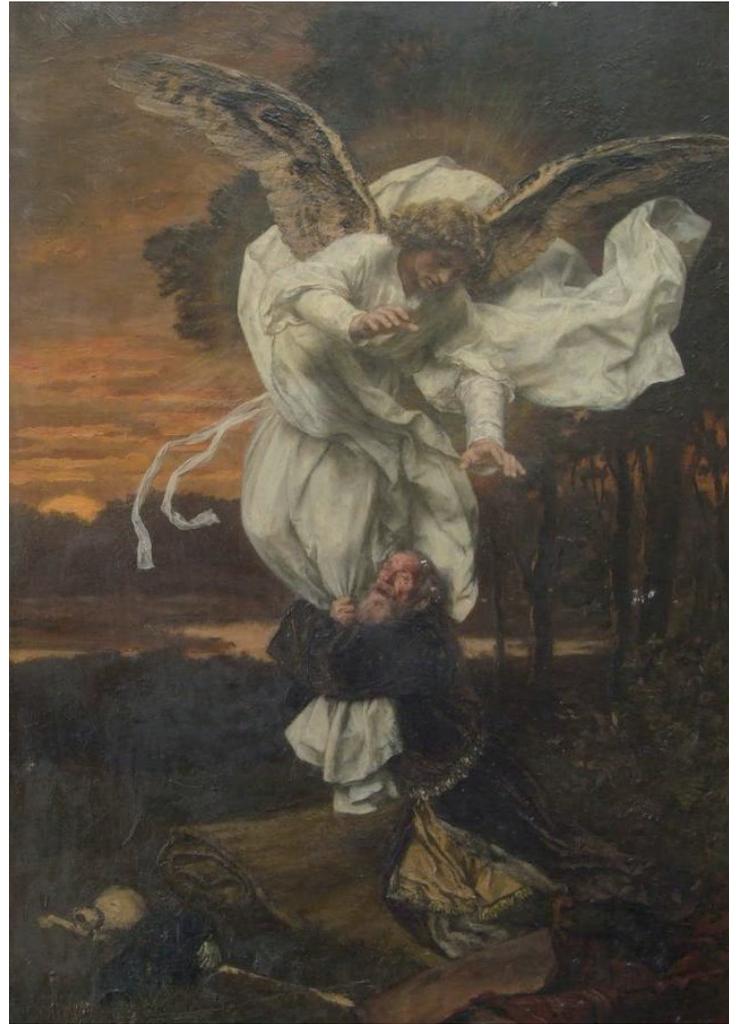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가 사백 명의 군사들과 마중 나온다는 소식에 잠 못 이룬다. 사백 명의 군사 앞에서 누가 편히 잘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절체 절명의 위기 앞에서 벤엘의 축복을 확인 받는다. 이 확신이 들기까지 그는 압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해야 했다. 에스토니아 출신의 개신교 화가 에두아르 본 겍하르트(Eduard von Gebhardt)는 평생토록 초상화와 성화만을 그렸다. 초상화를 통해 인간에 대한 관심을 키웠던 작가는 그것을 성화에 오롯이 쏟아부었다. 겍하르트가 그린 '야곱과 천사'는 같은 주제로 다른 이들이 그렸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천사와 야곱의 거루기를 팽팽한 접전으로 묘사했던 다른 이들과 달리, 겍하르트의 천사는 야곱을 훨씬 앞지르는 존재로 표현됐다. 때문에 야곱은 필사

적으로 매달린다. 잠 못 이루고 수척해진 얼굴의 야곱이 사력을 다해 천사의 옷자락을 부여 쥔 모습은 절박하고 처절한 심정에 대한 화가의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이 모습은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들과 똑같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게 주신 약속을 확인하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소리치듯. 압복 강가의 처절한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나의 데스티니 찾기'(고성준 저, 규장, 2018)의 저자는 압복 강 씨름의 본질을 '하나님을 쫓아 얻어낸 축복'이 아닌 '씨름 끝에 얻게 된 믿음'으로 설명한다.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실제 장벽은 눈앞에 닥친 현실도 아니요, 약속을 불이행하는 하나님의 변심도 아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게 쌓여온 내 편에서의 장벽이다. 이는 철저히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서 온다.

또한 장벽은 눈앞에 닥친 현실에 육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든다. 내게 속한 사람들을 계수하며 끊임없이 에서의 사백 군사들과 비교한다. 내 편이 육백이면 안심이고, 이백이면 불안하다. 그러면 권력자와 약속을 잡거나, 은행 대출을 의지하기도 하며, 접대와 연줄에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이 모두 장벽을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불의이기도 하다. 하지만 압복 강가에 홀로 서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장벽을 무너뜨릴 때 마침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얻게 된다. 승부처는 에서를 만나기 전 압복 강가였다. [GN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에두아르 본 겍하르트, <야곱과 천사>, 1894년, 유화, 70.5 x 47.5cm, 드레스덴 누에 마이스터 갤러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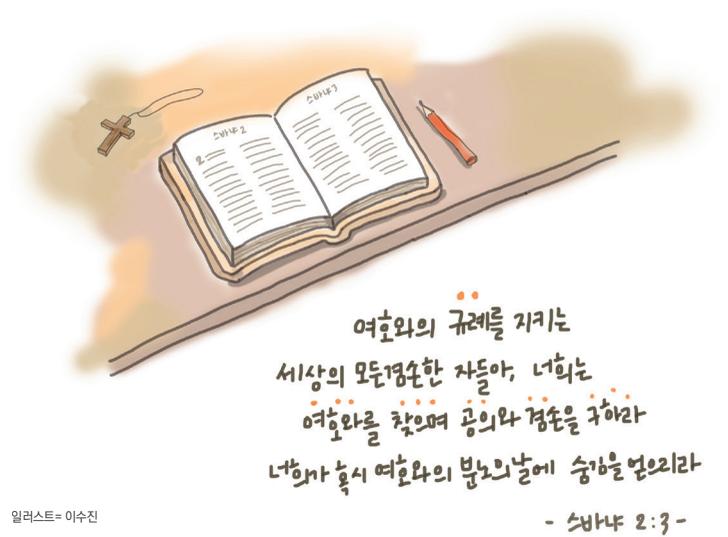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내 입맛대로'에서 '주님의 뜻대로'

저에게 5년을 교제해 온 형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 함께한 시간도 길다보니 주위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형제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제 신앙 역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가 형제가 주일 예배에 한두 번 빠지더니 급기야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반 협박으로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 결혼 안할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너는 내가 결혼을 목적으로 예배 나왔으면 좋겠나?"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났지만 그 말이 제게 충격이 되어 제 진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형제가 믿음으로 서는 것보다 그저 교회 생활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예배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반주자로 섬기면서 매주 연습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기쁘게 섬길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불만도 함께 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정작 제 안에 진리가 없었습니다. 제 모습이 이런데도 형제에게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올해 초 약속의 말씀으로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와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난 여전히 연약한데 혹시 여호와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지 못할까봐... 그러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1년을 되돌아보니 주님이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내면에 진리가 없음을 발견하고 회개 형제의 신앙의 방황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며 주님은 저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렀던 저를 그렇게 읽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고비도 있었지만 다시 붙잡고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팠습니다.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일러스트= 이수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이 곧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 어두워진 나의 영을 다시 주님의 눈물과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생각에 죄송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원망뿐이었던 저에게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삶으로 살아가게 도우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하며 주님과의 1:1 교제 속에 믿음이 자라나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형제를 향한 마음과 기도 제목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보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형제의 모습을 구했던 기도를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꿔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집 센 죄인입니다. 저의 입맛에 맞게, 저의 방법에 맞게 모든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아 말씀을 보지 않고 열심히만 살고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기도도 주님과의 1:1 교제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앞으로 저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GNPNEWS]

이수진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8. 12. 5 ~ 12. 19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권혜령 김동영 김선희 김수미 박성규 박일남 송일양 안병윤 안영숙 유연숙 윤경석 이동희 이삼연 이 순 이준진 장선주 전중현 정해월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황하임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모리아선교회 반석중앙교회 새순교회 은혜신일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주만교회 하원교회 험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